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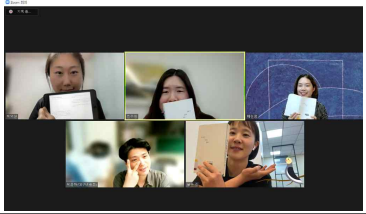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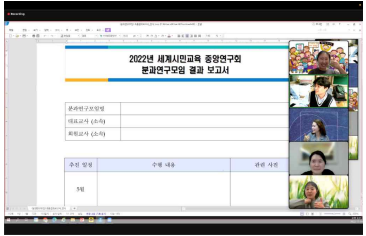


2022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분과연구모임 결과 보고서

분과연구모임명	스위치
대표교사 (소속)	박종하(대구비슬초)
회원교사 (소속)	김보은(대구덕인초), 천주연(경기하탑초), 배현명(서울성원초), 박덕현(서울용마초)

추진 일정	수행 내용	관련 사진
5월 23일	<p>도서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오픈마이크: [유발하라리와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교사] by 김보은</p>	
6월 18일	<p>도서명: 나는 독일인입니다 오픈마이크: [기록한다는 것] by 배현명 오프라인 모임: 스위치 올나잇 스위치 X 서촌 호모북커스: 도심 속 작은 월든, 공유서재, 호모북커스를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교류 활동 + 멤버 간 밤샘 토론(?)</p>	
8월 22일	<p>도서명: 미래교육 이전에 내 미래가 더 걱정이다 오픈마이크: [세계시민교육 이전에 내 미래가 더 걱정이다] by 박덕현</p>	
9월 22일	<p>도서명: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오픈마이크: [아무튼 환경 교육] by 천주연</p>	
11월 14일	<p>도서명: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오픈마이크: [차별과 다양성] by 박종하</p>	

11월 15일	오픈마이크: [스위치의 내년은?] by 배현명	
---------	---------------------------	---

연구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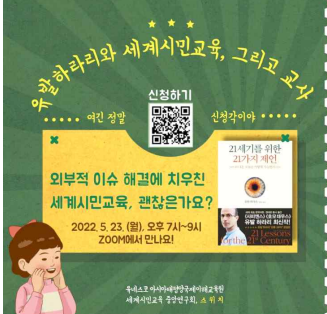
산출물 형태	모임 정리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switch2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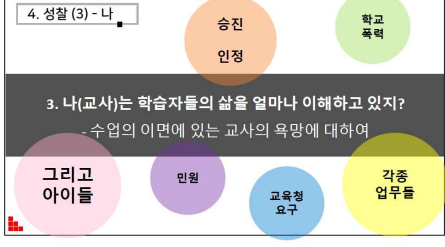
책 읽기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모임, 스위치(SWITCH)입니다. 2022 스위치 연구모임은 이런 방향을 향해 갑니다. 첫째, 호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세계시민교육에 영감이나 연결되고 있는 좋은 책을 정하고, 둘째, 그 책을 함께 읽고 셋째, 호스트가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질문거리를 던지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넷째, 오픈마이크에서 나온 의미있는 이야기들을 온라인 웹페이지로 구축하여 모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오픈마이크와 밀도 높고 진한 대화의 기록

도서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오픈마이크: [유발하라리와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교사] by 김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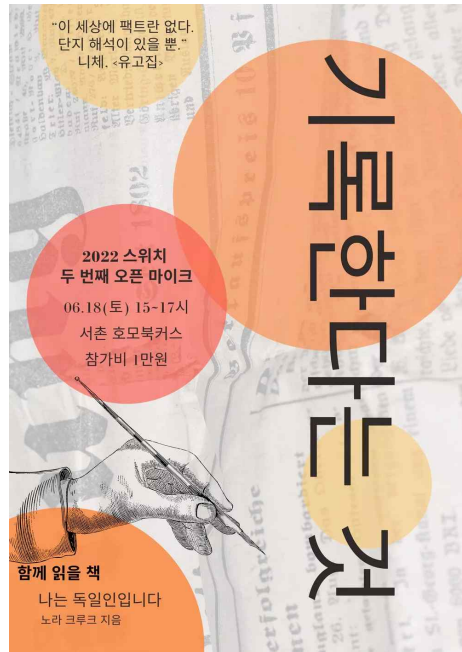
내용 요약 (필요시 사진 첨부)





▷ 나는 타인/세계와 정말로 연결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 어느 정도로요?
▷ 외부로 향한 불편한 시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 진정한 변혁일까? - 일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 아이들 각자는 수업 활동을 얼마나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일까?
▷ 나(교사)는 학습자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수업의 이면에 있는 교사의 욕망에 대하여

도서명: 나는 독일인입니다
오픈마이크: [기록한다는 것] by 배현명



주제 4: 기록의 새로운 가능성 탐구



그래픽 노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며 뉴욕 퍼슨스 디자인스쿨 부교수인 저자는 편지, 사진, 기록물 등의 역사 자료와 일화, 일러스트, 콜라주 등의 시각 장치를 이용해 나치 독일의 역사에 얽힌 가족사의 진실을 대면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다룬 현대 그래픽 노블이다. 기록보관소를 방문하고 가족들을 인터뷰하며 대학과 세대를 잇기는 노라 크루크의 여정은 개인사를 넘어 독일의 정통 2세대가 독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추하게 한다.



서촌 책사담이력 <여가>에서



합정우 대학교의 인태로 서촌 선덕



서촌 동네 서점 <여가>가+



서촌 남영역 책사담



연남산 트레킹



역사기록서 실려있는 서울의 책마루스당

- ▷ 교사는 아무튼 기록 노동자
- ▷ 기록은 진실한가, 객관적인가, 발전적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잣대는 무엇인가, 주인과 목격자는 무엇인가, 이 기록은 최선인가
- ▷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소감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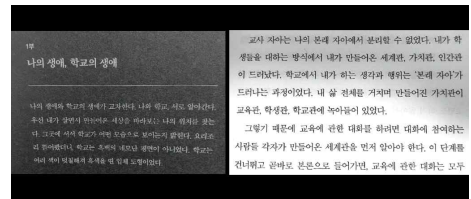
도서명: 미래교육 이전에 내 미래가 더 걱정이다
오픈마이크: [세계시민교육 이전에 내 미래가 더 걱정이다] by 박덕현

세계시민교육
이전에
내 미래가
더 걱정이다

2022년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zoom에서
<미래 교육 이전에 내 미래가 더 걱정이다> 책과 함께

나는 세계시민인가?
나는 왜 학교에서 고립되어 있는가?
시민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러저러 잘 생존해오다가 세계시민교육과 만나며 표류하는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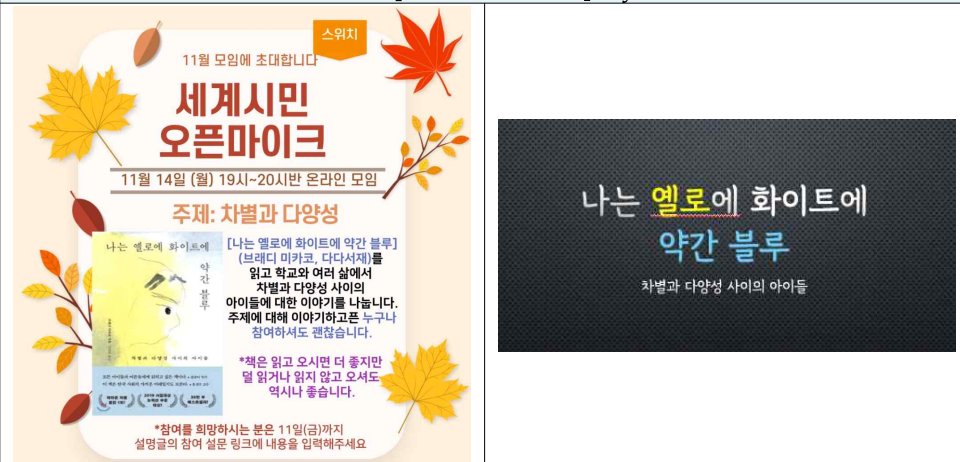
- ▷ 당신은 세계시민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세계시민으로 만드나요?
- ▷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시정표를 결정할 수 있나요?
- ▷ 우리는 왜 고립되어 있을까?
- ▷ 좋은 가치를 '가르치는' 세계시민교육 시민성은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 ▷ 생존하기에도 버거운 교사가 세계시민교육과 함께 잘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까?

도서명: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오픈마이크: [아무튼 환경 교육] by 천주연



- ▷ 환경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 ▷ 환경 교육을 위해 예산을 잡고, 물품을 구입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할까요?
- ▷ 환경 교육,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도서명: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오픈마이크: [차별과 다양성] by 박종하



- ▷ 내가 경험한 차별과 다양성의 경험은?
-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의감에 불타는, 선량한 차별에는 무엇이 있을까?
- ▷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영국이 왜 우리나라보다 더 차별적인 사회가 되었을까?

스위치 너머, 모두를 위한 아카이빙
<https://sites.google.com/view/switch21>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 기억과 함께 휘발되는 말들을 아카이빙 하고자 온라인 웹페이지에 구축을 통해 기억하고 또 발전하고자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고민하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는 결국 수업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교사에게 수업을 재구성하고 또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 인풋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꼼꼼히 기록하여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였으며, 업로드된 교사들의 고민과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의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손쉽게 접속하여 다른 교사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청의 힘은 무척 세다.

2023년은 스위치가 갖춘 고유성을 바탕으로 더 자유롭게 시도하고 탐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시원하게 김칫국**을 들이켜본다. 기대된다!

- 김보은: 올해 스위치에서 새롭게 시도한 오픈마이크는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열어주었다.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에서 공식적인 소통은 주로 수업과 연수를 통해 이루어졌었다. 학생들과는 수업에서, 동료 선생님들과는 연수를 통해 만나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드러내고 공유했다. 하지만 스위치 모임은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기분을 주는 모임이라 수업이나 연수와는 다른, 더 큰 자유로움을 느꼈다.

멤버들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색깔을 존중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대화 속에서 드러난 새로운 관점에 감탄을 한 적도 여러 번이다. 이런 덕분에 호스트의 역할을 했던 달에는 당시 나의 상황과 생각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내어 놓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배울 점 많은 멤버들과 올 한해도 스위치를 통해 함께하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었음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든다.

- 천주연: 항상 많이 배워가는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스위치에서 올해 오픈마이크라는 새로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책을 읽고 오픈 마이크 진행을 하기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나의 활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회원으로서 퍼실리테이터의 고민과 실천들을 듣고 이야기하며 함께 발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분과 모임을 진행하였는데,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선생님들과 깊게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스위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 박종하: 스위치 활동은 배움과 설렘을 동시에 줍니다.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세계시민적 실천과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시각을 얻는 가치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안도감**이 됩니다. 물론 바쁜 중에 퍼실리테이터를 맡아서 홍보 자료를 만들어 중앙선도교사, 지역선도교사, 주변 교사들에게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호스트의 역할에 맞게 진행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바쁜 학기 중에 맡아 치러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게 전개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오고갈지 기대하는 마음에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 있는 멤버들과 그리고 매 모임 마다 3분 정도의 게스트들이 함께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늘 실감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도전으로 함께 하는 스위치 활동으로 연대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것에 도전하고 함께 칭얼거리고 토닥이고 응원하게 될까요? **스위치는 설레게 합니다.**

- 박덕현: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도 알아보고, 또 나의 생각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책을 고르는 시간, 책에서 나의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선정하고 또 떨리지만 나의 고민들을 꺼내 놓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도구가 아니라 나로서 존재하게 하는 어떠한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 분과연구모임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지속되었으면 깊이 바랍니다.